‘10.27법난’ 40년 “국가권력 피해에 시효없다”

조계종, 40주년 추념식… 법난 피해자 참석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가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10.27 법난이 발생한지 꼭 40년이다. 10.27 법난은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한 희생양으로 불교를 침탈하고, 이로 인해 불교계에 극심한 피해와 후유증을 남긴 아픔의 역사다. 법난으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을 비롯한 스님 등 불교계 인사 1770여명이 강제로 연행됐으며, 고문과 폭행을 당해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스님도 적지 않았다. 40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불교계에 대한 명예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10.27법난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추념하기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10.27법난 40주년 추념식’을 봉행했다. 추념식에는 명예원로의원 명선 대종사와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삼혜 스님, 사회부장 성공 스님 등 교역직 스님과 법난 피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0.27법난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념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진상 규명 등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시효가 없다”며 “10.27법난 역시 피해 생존자들은 물론,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 규명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제36대 집행부는 10.27법난 추념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혀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위법망구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0.27법난으로 인한 불교계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을 위해 2024년 강남 봉은사 부지에 10.27 기념관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난 피해자인 명예원로의원 명선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27법난 당시 상황을 전시한 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다.

조계사서 피해자 천도재 봉행도
국가권력에 침탈당한 역사 조명
정부에 진상규명 · 명예회복 요구
교구본사 · 피해사찰, 현수막 게재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총무부장)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강제 연행됐고 엄청난 고문과 조작이 뒤따랐다. 한국불교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스님들은 부패한 경제사범으로 매도당했고 수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매도에 실망하여 불교에 등을 돌렸다”며 “이 모든 것이 ‘국가권력의 남용’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하기까지 무려 27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스님은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표명됐고 이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구체화 되는 등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았고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10.27 법난 피해 생존자가 58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 역시 77세로 대부분이 먼 미래를 기약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이라며 “한국불교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하루빨리 10 · 27법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히 한국불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대표로 인사말을 한 명예원로의원 명선 대종사는 “종단에서 10.27법난의 진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법석을 이렇듯 여법하게 마련해 준데 대해 총무원장 스님께 깊이 감사한다”며 법난 당시 화엄사 주지이자 직접적인 피해자로 강제 연행 이후 65일간 이어진 감금과 진실왜곡을 위한 요구, 폭력에 대해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추념식에 앞서 법난 40주년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 사상 처음으로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전국 교구본사와 법난 피해 사찰에서는 당일 오전 10~11시 일제히 40주년 추념 의미를 담아 타종하고 관련 현수막을 게재했다. 또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법난 로고를 개발하고 샌드아트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법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 21부터 2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10월 26~28일 서울 봉은사에서 10.27법난 특별 전시회를 진행했다.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에 공개되는 용주사 감로도(사진 왼쪽)와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오른쪽).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화성 용주사 성보에 담긴 孝이야기

불교중앙博 ‘용주사’ 특별전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 돼
〈부모은중경〉 목판 · 석경 등
효행 본찰 용주사 면모 확인
칠장사 괘불탱 공개도 ‘눈길’

화성 용주사는 조계종 제2교구본사로 조선 후기 정조의 효심이 담겨진 효행본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용주사 성보문화재 속에 담겨진 효 사상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내년 2월 28일까지 ‘효심으로 나툰 불심의 세계 화산 용주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인 교구본사 특별전에는 국보 1건, 보물 10건, 유형문화재 15건, 세계기록유산 1건 등 경기남부권을 대표하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소속 말사들의 성보문화재들이 선보여진다.

총 4부로 진행되는 전시는 용주사 전신인 갈양사의 가지산문 선맥부터 효 사상과 왕실문화 관련 성보문화재, 근현대 용주사 선지식까지 용주사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거나 비장(備藏)됐던 성보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문화재가 국보 제296호 칠장사 오불회괘불이다. 길이 6.56m, 폭 4.04m의 칠장사 오불회괘불은 구름을 이용해 상 · 중 · 하 3단으로 구분됐다. 상단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불과 노사나불이 좌우에 모셔진 삼신불을 묘사하고 있고, 중간은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들이 있어 삼세불을 표현했다. 하단에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그려 수미산 정상의 도솔천궁을 표현했다. 이 같은 3단 배치는 예배자들에게 삼신불과 삼세불의 세계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구원으로 도솔천궁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칠장사 오불회괘불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별전 기간에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칠장사 오불회괘불은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설치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루 세 차례 예약을 받아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후인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1933년에 조성된 용주사 괘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2호), 용주사 감로도, 칠장사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보물 제1627호),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 전적(보물 제1095호), 청원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복장 전적(보물 제1795호) 등도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성보문화재로, 이번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문경 봉암사 마애불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29일 지정 예고
조선 경전 · 고려 청동북도
보물 기사계첩, 국보 승격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과 조선시대 경전과 고려시대 사찰명문 청동북이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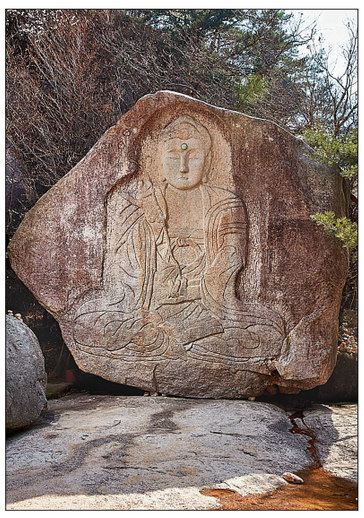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과 조선 초에 제작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 고려 명종에 조성된 ‘미륵원’명 청동북을 보물로 승격 · 지정 예고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은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1663년(현종 4)에 제작된 마애불로서, 경북 봉암사 옥석대에 위치해 있다. 제작시기와 주관자, 존상(尊像) 명칭은 풍계명찰(楓溪 明察, 1640~1708)의 문집 〈풍계집(楓溪集)〉에 수록된 ‘환적당대사행장’을 통해 확인된다. 명찰은 17세기 승려 환적당 의천의 제자로, 이 책에 의천이 발원해 마애불을 조성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좌상은 높이가 539.6cm, 너비가 502.6cm 정도이며 머리 주변을 깊게 파서 광배 형상을 만들고, 위는 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얕은 부조로 처리했다. 특히 얼굴과 자세, 착의법 등 세부표현에서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1622)’,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1653)’ 등 17세기 괘불 표현요소를 찾아 볼 수 있어 불화와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불상의 수인(手印)은 미륵불의 수인 중 하나인 ‘용화수인(龍華手印)’으로, 두 손으로 긴 다발형의 꽃가지를 쥐고 있는 모양이다. 1663년이라는 뚜렷한 제작연대를 염두에 둘 때 마애불 도상이 확인된 기준작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미륵원’명 청동북은 측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으로 통해 1190년(고려 명종 20) 미륵원에 걸기 위해 제작한 금고(金鼓)임이 확인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미륵원’명 청동북은 12세기 청동북 중에서 비교적 큰 크기의 대형 청동북이며, 문양의 조각 솜씨가 좋고 주조 기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또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는 중국 당나라 승려 규봉종밀의 초본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 1465년(세조 11년)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한 것으로 줄여서 〈원각경(圓覺經)〉이라고 부른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는 전래되는 판본이 적은 귀중본으로서, 15세기 국어학과 서지학, 금속활자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2 ·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포상

교육원 포상식… 정천 · 도업 · 광일 · 영호 스님 수여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시행한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에 정천 스님과 도업 스님이 선정됐다. 또 9월 11일 시행됐던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에는 광일 스님과 영호 스님이 선정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0월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2 ·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2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수석합격자로 선정된 정천 스님은 회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현재 종단 교육아사리로 활동하고 있다. 비구니 수석합격자 도업 스님은 동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종단 교육아사리이며 현재 성공회대에서 불교를 강의하고 있다.

4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수석합격자로 선정된 광일 스님은 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016년 직지사에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올해 기본선원을 졸업했다. 비구니 수석합격자 영호 스님은 정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16년 직지사에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고 올해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날 포상식에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승가고시에 임한 스님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인 만큼 막중한 역할이 있다”며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한국 불교 미리를 일궈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4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종사 · 명덕 법계’ 및 2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덕 · 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9일 2 ·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포상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영호, 도업, 진우, 정천, 광일 스님.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지본처 기념한다

오는 11월 9일 통일대불서
성보 귀국 환영법회 봉행

한국전쟁 직후 사라진 후 미국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법석이 열린다. 특히 이날 법회는 성보의 진정한 환지본처 의미를 되짚는 동시에, 코로나19 조기종식 및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는 11월 9일 오전 9시 경내 통일대불에서 신흥사 영산회상도 · 시왕도 귀국 환영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신흥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강원도와 속초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날 법회는 영산회상도와 시왕도의 환지본처 의미를 되새기는 법석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아 봉행된다는 점에서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국민 정서를 위로하는 치유의 장이기도 하다.

환영법회에 앞서 6.25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국내외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6.25 전몰 희생영령 위령제’도 봉행될 예정이다. 위령제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으로 대령과 관욕, 어산종장 화암 스님 집전의 불공으로 거행된다.

송지희 기자